

제주~칭다오 협정 거센 '후폭풍'

법상 위법 지출 예산 규모만큼 교부세 감액 가능
페널티 감경 위해선 재정 손실 회복 노력 있어야
손실보전금 지급 지속시 불이익 규모 덩달아 늘어

제주도와 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들
협정이 재정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정부 판단이 나오며 후폭풍
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가
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에 손실보전
금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마당에,
'투자심사 패싱'으로 앞으로 받게
될 재정상 불이익도 수십억원에 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체의 재정 지출 예정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법상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면 투
자심사를 받은 뒤 타당하다고 판단
될 때에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란 장래에
세출예산으로 잡혀 재정 부담을 야
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지자체가 특정 시기에 모
업체와 투자 계약을 맺어 의회
예산안 또는 동의안 심의를 요구했
다면, 이는 당시 시정상 그해 예산
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계
약에 의해 추후 의무적으로 지출해
야 하기 때문에 미리 투자심사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한다.

지난 2024년 체결된 제주~칭다

오 항로 협정은 선사 측이 손실을
보면 제주도가 3년간 최대 225억
원을 보전하는 조건이다. 장래에 100
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 별제처
모두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
지만, 제주도는 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 지난해 10월 항
로가 개설된 이래 올해 4월까지 제
주도가 6개월간 지급한 손실보전
금은 48억원에 달한다.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한 지
자체는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집행할 경우
위법하게 지출된 범위 내에서 교부
세를 감액한다. 당초 투자심사 미
이행에 따른 교부세 감액 범위는
부당 지출 규모의 10% 이내로 한정
됐지만, 2008년 시행령 개정으로
이런 제한선이 사라졌다.

행안부는 지난 2014년 미술관 건
립 과정에서 투자심사 절차를 거
치고 설계비 5억원을 집행한 모 지
자체에 대해서도 설계비 전액에 해당
하는 교부세 5억원을 감액했다.

제주도도 선사에 지급한 손실보
전금 규모만큼 교부세를 감액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령을 위반해

도 지자체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
해 보완에 나설 경우 감액 규모를 줄
일 수 있지만 제주도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페널티를 감경하려면 자금 회수
등 재정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조
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제주도가
손실을 때우려면 선사에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
후 투자 심사'도 불투명하다. 제주
도는 올해 1월 행안부가 제주~칭
다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회신하자, 뒤늦게라도 절차를 이행하
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행안부 반응은 회의적
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투자심사
는 지자체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
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며 "제주
도는 이미 예산을 지출한 뒤라 (사
후 심사는) 실익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불이익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도
문제다. 손실보전금은 협정에 따라
매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선사에
게 돈을 줄 때마다 재정 페널티도
그만큼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불이익 규모가 늘어나는 문제는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며 "협약
변경, 사후 심사 등 상정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18일 사려니숲을 찾은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며 녹음이 우거진 숲길을 걸어가고 있다.

강희민기자

제18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 오늘 개막

23일까지 닷새간 물차오름 한시 개방·시험림길 운영
음악공연·생태공방·사진 클래스·동행 탐방 등 다채

"걷고, 쉬고, 치유하는 명품 숲길,
사려니숲으로 초대합니다."
삶에 지친 현대인을 위한 '치유
의 숲' 사려니숲 일대에서 닷새간
에코힐링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제주자치도가 19일 오전 10시30
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사
려니숲길 열린무대(붉은오름 입구)
에서 '제18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를 연다. >>관련기사 7면

개막식 식전행사로 제라진소년
소녀합창단 공연을 비롯해 행사기

간에는 사우스카니발, 클래식팝콘,
위티, 타지, 디어, 루다 등이 무
대에 올라 숲속을 아름답고 활기
찬 선율로 채운다. 시울림&에그리
나의 무용 시극도 만날 수 있다.

사려니숲 생태공방, 치유 프로그
램, 디카시 체험, 미니 사진 클레
스, 해설사 동행 탐방 프로그램도
있다. 동행 탐방은 비자림로 입구
해설사 부스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특히 행사기간에는 자연휴식
년제로 평소 출입이 제한되는 물차

오름이 한시적으로 개방되며, 한라
산 둘레길 6구간에 위치한 시험림
길(이승약탐방휴게소 출발)도 특별
운영된다. 물차오름 탐방은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 6회 운영된다.

한남사려니오름숲 출구~사려
니숲 붉은오름 입구 구간에 대한
무료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운행 시
간은 ▷평일 낮 12시30분~오후 5시,
배차 간격 30분 ▷주말·휴일 낮 11
시20분~오후 5시, 배차 간격 20분
이다. 시험림길 탐방객을 위한
셔틀버스는 운행 시간과 배차 시
간은 평일과 동일하다. 백금탁기자

제주 수출 5개월 만에 지난해 실적 돌파

1~5월 누계 3억5000만달러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도체 수출 호
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을 올해 5개월 만에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올해 1~5월 누계 수출
액이 3억5000만 달러로 집계돼 지
난해 연간 수출액 3억4000만 달
러를 이미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고 실적이다.
도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과

함께 항공기 수리용 부품, 보톡스
등 의약품 수출 증가가 맞물리며
수출 품목이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다변화된 결과로 분석했다. 여기에
화장품과 육류 수출도 꾸준한 증가
세를 보였다. 김채현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일본뇌염 경보 발령... 도,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내려지면
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최근 대구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
전자 검출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대부분 발열과 두통,
구토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경련, 마비 등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 심할 경우 사망하거나
신경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광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50411-증-187436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제주)

건강검진
여기서!

KH MEDIV CHECK

종합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맞춤형건강검진
직장인건강검진

예약 문의 064)740-0200